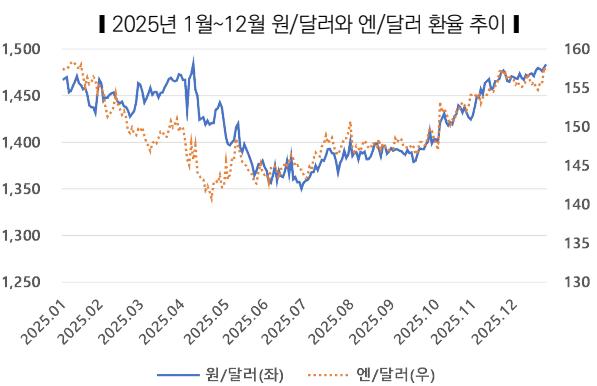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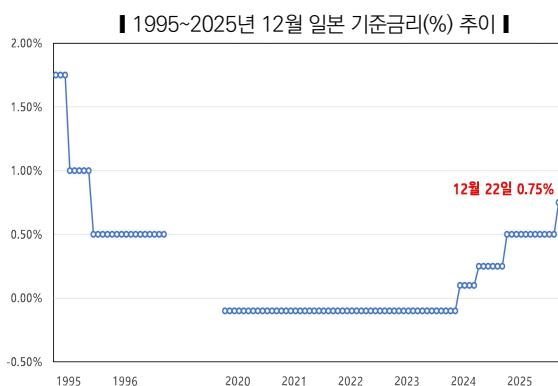


세계 경제 동향

● 일본 기준금리 0.75%로 인상 | 2025-12-19 [일본은행\(BOJ\)](#); 2025-12-26 [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](#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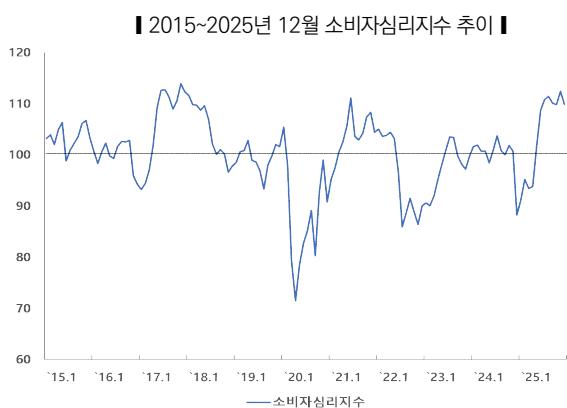
- 2025년 12월 19일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(BOJ)은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를 기존 0.5%에서 0.75%로 0.25%p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함. 이번 금리 인상으로 일본 기준금리는 1995년 9월부터 0.5% 이하로 내려간 이후 30년 만에 0.5%를 넘어서게 됨. 금리 인상은 2025년 12월 22일부터 적용됨.
- 일본은행은 미국 경제 및 각국의 무역정책 영향에 대한 불확실성이 감소하고, 임금과 물가가 모두 완만하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함. 한편, 올해 엔/달러 환율은 지난 4월 22일 140.8엔까지 하락한 이후 상승세를 이어 가고 있으며, 원/달러 환율과 유사하게 움직이는 동조화 국면이 짙어지는 모습임.



국내 경제 동향

● 2025년 12월 소비자심리지수 전월 대비 2.5포인트 하락 | 2025-12-24 [한국은행](#)

- 2025년 12월 24일 한국은행은 소비자심리지수(CCSI)가 109.9로 전월 대비 2.5p 하락했다고 발표함. CCSI를 구성하는 6개 지수 중 가계 재정상황에 대한 인식 지수에서 현재생활형편(-1p), 생활형편전망(-1p), 그리고 가계수입전망(-1p) 지수가 전월 대비 하락하였음. 단, 소비지출전망 지수는 전월 대비 변화가 없었음.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 지수에서 현재경기판단(-7p)과 향후경기전망(-6p) 지수는 전월 대비 하락 폭이 크게 나타남.
- 한편, 향후 1년간 소비자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칠 주요 품목의 응답 비중은 석유류제품(+15.3%p)의 응답 비중이 전월에 비해 증가한 반면, 농축수산물(-6.0%p), 집세(-5.1%p) 비중은 전월 대비 감소함.



2025년 12월 소비자동향지수		
'25년 11월	'25년 12월	전월 대비
가계 재정상황에 대한 인식 지수		
현재생활형편	96	95
생활형편전망	101	-1p
가계수입전망	104	-1p
소비지출전망	110	변동없음
경제상황에 대한 인식 지수		
현재경기판단	96	-7p
향후경기전망	102	-6p
물가상승 기대형성 요인에 대한 응답 비중(%)		
농축수산물	51.0%	-6.0%
석유류제품	30.5%	+15.3%
집세	19.4%	-5.1%



세계 농업·농정 동향

● 농림수산성 '일식(日食) 보급 친선대사' 임명 | 2025-12-15 농림수산성

- 일본 농림수산성은 해외에서 활동 중인 일본 요리 관계자 15명을 '일식 보급 친선대사'로 임명함.
 - 농림수산성은 일본 음식·식문화 및 농림수산식품의 해외 홍보와 수출 확대를 위해 '일본 음식 친선대사' 제도를 운영 중이며, '15년 2월 도입 이후 누적 225명(국내 54명, 해외 171명) 임명
- 일식 보급 친선대사는 일본 음식·식문화 확산과 농림수산성 사업 홍보를 위해 현장·미디어 홍보 활동을 수행함.
 - ❖ 농림축산식품부는 권역별 맞춤형 마케팅 강화를 위해 'K-푸드 대사'를 임명하고, 이를 활용한 해외 홍보를 통해 K-푸드 수출 확대를 추진할 계획

● FAO, 전 세계 물 부족 심화 속 농업용수 부담 확대 경고 | 2025-12-12 FAO

- 전 세계적으로 1인당 재생 수자원이 지난 10년간 7% 감소하며, 농업 부문의 물 이용 부담이 확대되는 추세임.
 - 농업은 전 세계 담수 취수량의 약 72%를 차지하며, 기후변화와 수자원 감소가 농업 생산 여건을 제약
- 물 이용 효율성 개선에도 불구하고, 수자원 스트레스가 농업 생산과 식량 공급 안정에 부담으로 작용함.
 - 관개농업 의존 지역을 중심으로 물 부족 심화가 농업 생산 여건을 제약하며 생산 안정성 저하로 이어지는 양상
 - FAO는 물 이용 효율성 제고와 지속가능한 농업용수 관리가 향후 식량 공급 안정의 핵심 과제로 부상했음을 강조

국내 농업·농정 동향

● 2026년 농식품 바우처 사업 확대 시행 | 2025-12-21 농림축산식품부

- 2026년 농식품 바우처 사업이 12월 22일부터 신청 개시되며, 지원대상·기간·품목·규모가 전반적으로 확대됨.
 - 기존 생계급여 수급 가구 중 임산부·영유아·18세 이하 아동 가구에서, 34세 이하 청년 포함 가구까지 대상 확대 *(25) 약 8.7만 가구 → (26) 약 16만 가구로 확대
- 바우처 지원 기간이 연 10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되며, 단기 지원에서 연중 상시 면거리 지원 체계로 전환됨.
 - 지원 대상 확대에 따라 총사업비가 773억 원에서 1,544억 원으로 2배 증가하며, 취약계층 식생활 지원 규모 확대 *국비 기준 ('25) 381억 원 → ('26) 740억 원
- 바우처 사용 범위 확대를 통해 식생활 지원의 실효성이 높아지고, 실제 이용 가능성도 함께 강화됨.
 - 구매 가능 품목이 농축산물 중심에서 임산물(수실류)까지 확대되며, 식재료 선택 폭과 활용도 제고
 - 사용 가능 매장이 전국 약 6만 개소로 확대되며, 지역 내 접근성 개선과 함께 바우처 사용의 실질적 제약 완화

● 2025년산 과일류 품목별 생산 증감 속 전반적 공급 안정 예상 | 2025-12-24 농림축산식품부

- 사과 생산은 감소·배 생산은 증가하였으나, 저장·출하 여건을 고려할 때 단기 수급 불안 가능성은 크지 않음.
 - 사과는 재배면적 감소로 생산량이 2.6% 줄었으나, 저장량이 전년과 유사해 '26년산 수확 전까지 공급 여력 전망
 - 배는 병해충 피해 감소와 생육 개선으로 생산량이 10.7% 증가하며, 당분간 공급 여건은 비교적 여유 있는 흐름
- 감귤·포도·딸기 등의 과일류는 작황 개선과 저장물량 확대로 전반적인 공급 안정세가 이어지는 모습임.
 - 감귤은 열과·낙과 피해 감소로 생산이 늘고, 포도는 전년 대비 증가한 저장량으로 성수기 수요 대응 여력 확보
 - 딸기는 겨울철 작황 호조로 출하량 증가가 이어지며, 가격 변동성은 제한적인 수준에서 관리될 것으로 예상